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력 지원

- 수출 5대 핵심업종 수출목표 상향 ... 반도체 1,350억 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 K-뷰티·K-푸드 230억 불
- 수출 확대, 고금리 등 적기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 370조 원(+5조원) 공급
- 하반기 역대 최대 수출전시회 253회 집중 개최... 수출기업 1만개 사(社) 지원
-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수출 리스크 관리 철저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준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화),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하였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 ①시중은행 협력기반 중소 특화패키지 우대금융(은행금융상품+무보보험보증) 4,833억 원 지원,

②해외인증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186 → 190개) 등

** 해상운임비 상승에 대응한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5,000TEU 이상) 추가 투입 등

*** 자동차·흑연 대상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26년), 바이오·한·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MRA 체결 등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 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①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③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④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⑤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①반도체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 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②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③석유화학 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④K-푸드 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⑤중소기업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산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①물류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②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③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24.12월). ④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참고】 1.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3. 하반기 수출확대 지원 추진방향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최혁기(044-203-4021)
			사무관	권승기(044-203-4023)
			사무관	서두원(044-203-4024)

참고1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7. 16 (화), 14:00~15:3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장 (주재)
 - (민간기업)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이상목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 등
 - (지원기관)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등
 - (관계부처) 복지부, 과기정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외교부, 중기부 등

2 주요 의제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산업부)
- '24년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무역협회)

3 세부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2	02'	기념촬영		
14:02~14:10	04' 04'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장
14:10~14:40 (30')	12'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07')	발제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무역정책관
	(05')		'24년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무협 본부장
	18'	토론		초참석자
14:40~15:28 (48')	30'	업계 수출동향 공유		
	(30')	발표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바이오 → 식품 → 화장품 (각 5분)	업계 대표
	18'	토론		초참석자
15:28~15:30	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님,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님,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님,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님, 아모레퍼시픽 이상목 사장님,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님,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님,
코트라 유정열 사장님을 포함한
수출 지원기관 및 관제부처 관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상반기 수출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전망 】

올해도 벌써 7월입니다.
한해의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GDP성장률/순수출기여도(한은, %): '23.3Q +0.8/+0.8 → '24.1Q +1.3/0.8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 수출증가율(%) : ('23.1Q) △12.8 → ('23.2Q) △12.0 → ('23.3Q) △9.7 → ('23.4Q) +5.7 → ('24.1Q) +8.1 → ('24.2Q) +10.0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 6월 역대 최대 수출실적(134억불)을 기록하였고,
상반기 기준 역대 1위 수출실적을 기록한 자동차와 함께
선박,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24.上 품목별 수출 증가율(%) : (반도체)+52.2, (자동차)+3.8, (석유제품)+7.7, (선박)+28.0, (油化)+4.1

이에 힘입어 상반기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며
'18년 이후 최대 실적인 +231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역사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대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교역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WTO, +2.6%)되면서,
우리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상반기 부진했던 철강·이차전지 수출은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품목별 수출 목표 : 반도체 1,300억불 이상, 자동차 760억불 이상(부품 포함시 1,000억불)

조심스럽지만,
올해 우리 수출은 지난 '22년 6,836억불을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재부 하경정 6,891억불, 산업연 6,848억불, 한은 6,922억불, 무역연 6,900억불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

관목할만한 수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우리가 발표한 수출 7천억불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하반기 수출상황을 고려하여
반도체 1,350억불, 자동차(부품 포함) 1,00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불, K-뷰티·K-푸드 230억불 등
핵심 품목의 연간 수출목표를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첫째, 금융·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상승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370조원까지 확대(기존 365조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총 90조원을 지원하면서
수출 보험료 50% 일괄 할인,
수출성장금융 최대 5배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253회 수출전시회를 개최하여
약 1만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조선, 바이오, K-푸드 등
수출 상승세 품목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춰
생산, 물류, 관세, 규제, 인력 등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업체에서 걱정이 많은
물류비·노사관계·환변동·통상현안 등
4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부담 완화, 임시선박 투입, 추가 선복제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하반기 수출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로켓과 같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참고3

하반기 수출확대 지원 추진방향

비전

목표

방향

국가적 수출역량 결집으로
'27년 세계 수출 5강 도약

◆ '24년 역대 최대의 수출 7천억불 달성

① 수출목표 대비 부족한 수출 100억불 추가 달성 총력

* '24년 수출 6,891억불 전망('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② 5대 핵심업종* (반도체, 자동차, 석유, 푸드, 뷰티) 수출목표 상향

* ①반도체 1,350억불(목표 대비 +100억불), ②자동차·부품 1,000억불(+10억불),
③석유제품·화학 1,030억불(+14억불), ④K-푸드·⑤K-뷰티 230억불(+8억불)

③ '24년 무역금융 370조원 공급 (기존 대비 5조원 확대)

④ 하반기 수출전시회 253회 개최, 역대 최대 1만개社 지원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① 금융

- ▶ 무역금융 5조원 확대
- ▶ 수출보험료 50% 할인
- ▶ 수출공급망 제도 신설

② 마케팅

- ▶ 수출전시회 집중 개최
- ▶ 3대 전략업종 집중 공략
- ▶ 新수출플레이어 육성

③ 해외인증

- ▶ 해외인증 119 신설
- ▶ 상호인정품목 200개

④ 통관

- ▶ 간이수출신고제도 개선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

① 수출 상고하고 품목

- ▶ 반도체
- ▶ 자동차·부품
- ▶ 석유제품·화학
- ▶ 조선
- ▶ 디스플레이
- ▶ 바이오헬스
- ▶ K-푸드

② 수출 상저하고 품목

- ▶ 이차전지
- ▶ 철강

수출 리스크 관리

① 물류비 상승

- ▶ 물류바우처 신설
- ▶ 中企 전용선복 제공

② 노사관계

- ▶ 노사법치 확립
- ▶ 상생·연대 노사관계

③ 환율변동

- ▶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

④ 통상환경

- ▶ 4대 주요국 집중 관리
- * 美, EU, 日, 中